

Kim Dong Young Solo Exhibition

김동영 개인전

Embracing-품다



2025년 11월 19일 ▶ 12월 01일

오프닝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 4시

충북갤러리

인사아트센터 2층 (종로구 인사동길 41-1)

후원



충북문화재단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CONTENTS





작가소개

김동영

작품

Embracing 품다

작가노트

평론

CRITICAL ESSAY
LEE HO-YOUNG

김동영

Kim, Dong Young

김동영 Kim, Dong Young

EDUCATION

2007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학위 미술학과(회화)

1983 켄터키 주립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M.F.A.)미술학과(회화)

1981 켄터키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Kentucky) 미술대학 미술학 학사(B.F.A.) Visual Art
학과 회화

SOLO SHOWS

2022 김동영 개인전,금호미술관, 서울,11.03-13

Kim, Dong Young, “Embracing-품다” Seoul, Korea, 11. 03-13

2016 김동영 초대전, 새 버럼, 사랑아트 갤러리 서울 4.16-5.15

Kim, Dong Young, “A New Wind”, Sarang Art Gallery, Seoul, Korea, 4. 16- 5.15

2004 잎클로버의 알레고리와 상징, 인사아트센터, 서울, 5. 19 -26

Kim, Dong Young ‘A Symbol & Allegory of Four Leaf Clover“, Insa Artcenter,
Seoul, Korea,, 5. 19 -26

GROUP SHOWS

2025 샤롱 공빠레종, 그랑빨레 파리,프랑스, 2.18-22

Salon COMPARAISONS, Grand Palaisi PARIS, France, 2. 18 - 22

2019 국제교류전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 강릉시립미술관기회초대, 강릉, 12. 13-29

“Gazes upon the Present”, Gangneung Municipal Museum of
Curated Invitational. 12.13 -29

2015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팔라조 로레단, 베니스, 이태리, 5.9-6.18

“Jump into the Unknown” Palrazo Loredan, Vence Italy, 5. 9- 6. 18

김동영 Kim, Dong Young

PROFSSIONAL BACKGROUND

2015 - 현재 국립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1987 - 2015 국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역임
2008 - 2010 한국미술교육학회 학회장
2000 제1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서양화분과)

AWARDS & HONORS

2015 대한민국 동백훈장
2023 제 35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 수상
2024 자랑스러운 서울교대인

COLLECTIONS

엔리께 노트 컬렉션, 뉴욕, 미국
사바에 현대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서울대학교 모아 미술관, 서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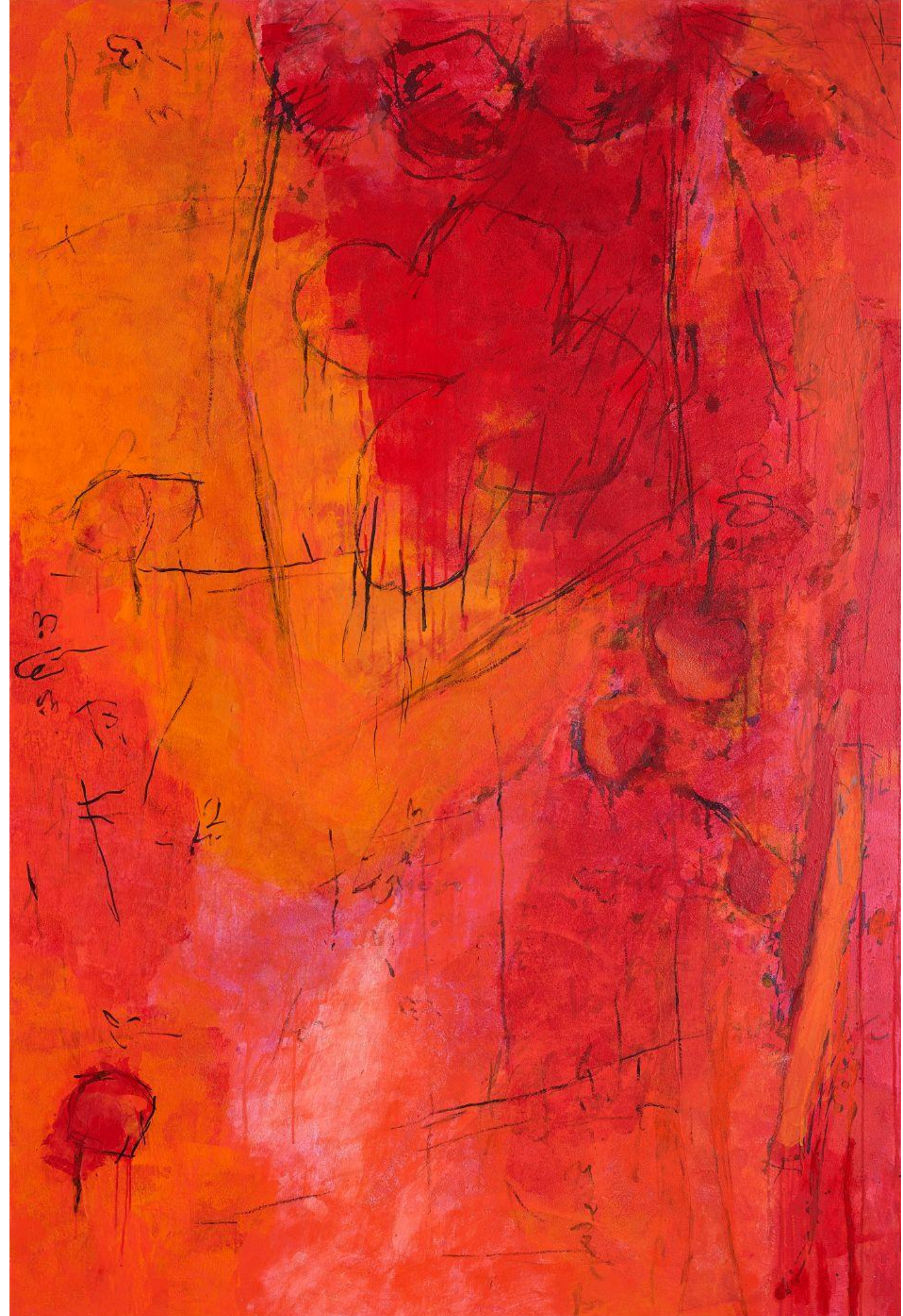






Embracing—품다

130.3x97cm
Acrylic on Canvas
2022



Èmbracing—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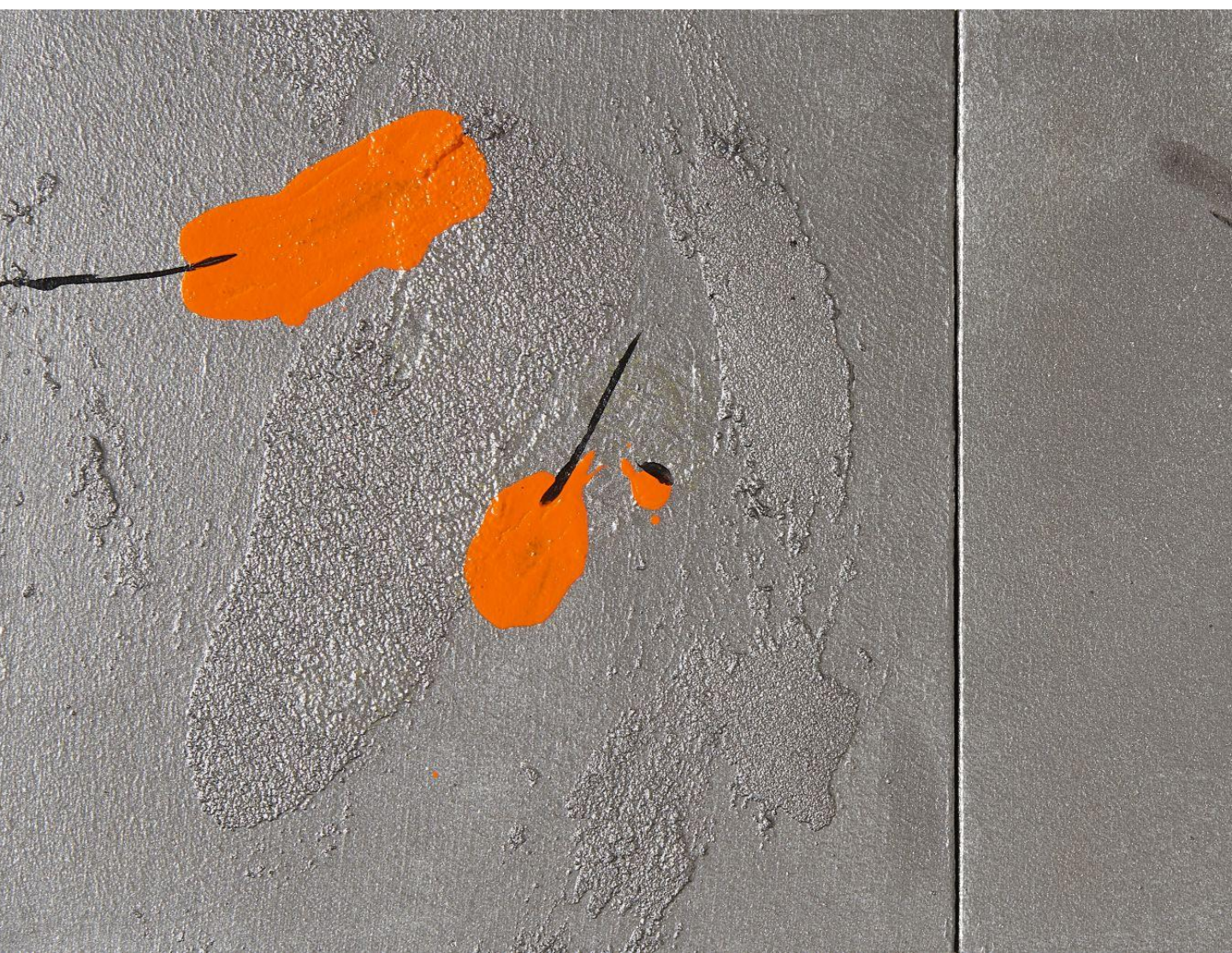
193.9x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2





Embracing—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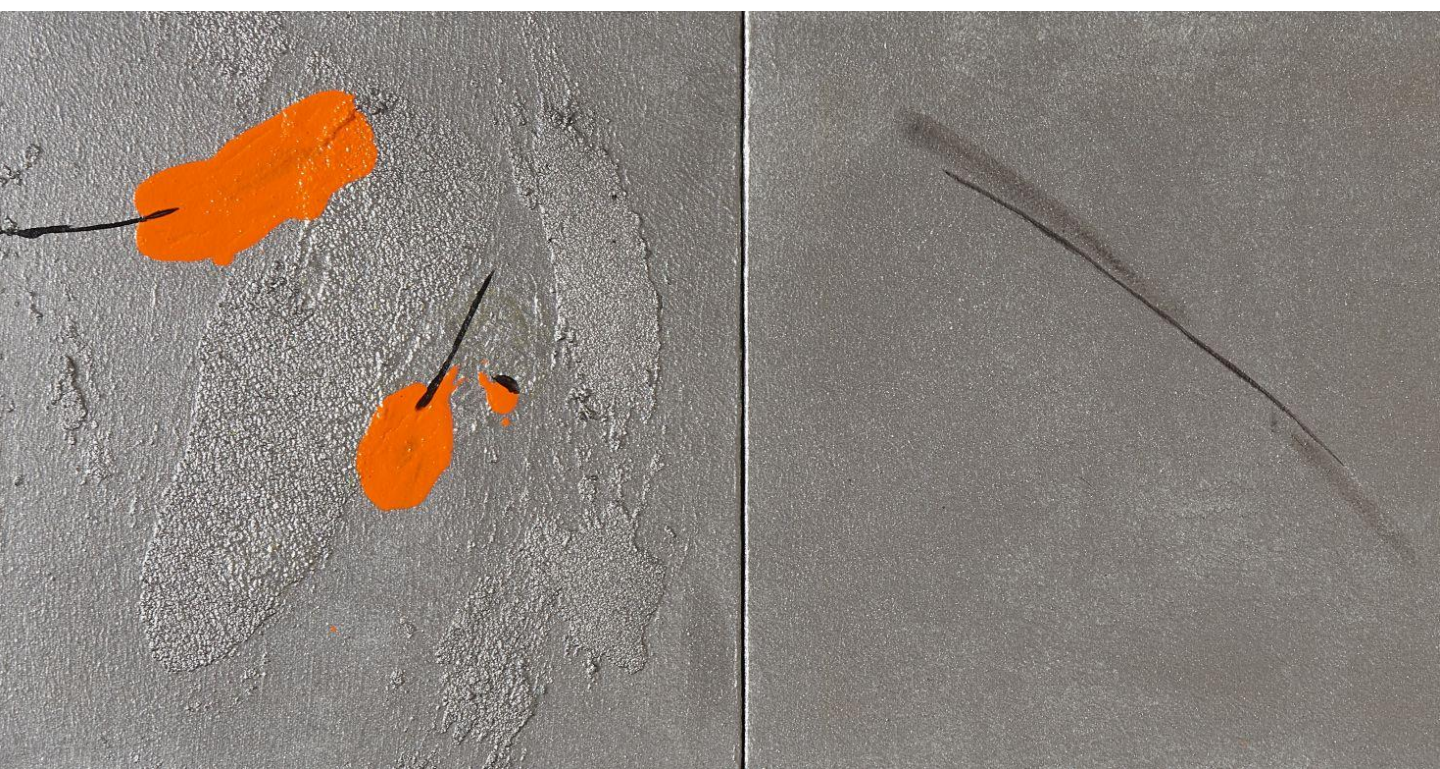
193.9x259.1cm
Mixmedia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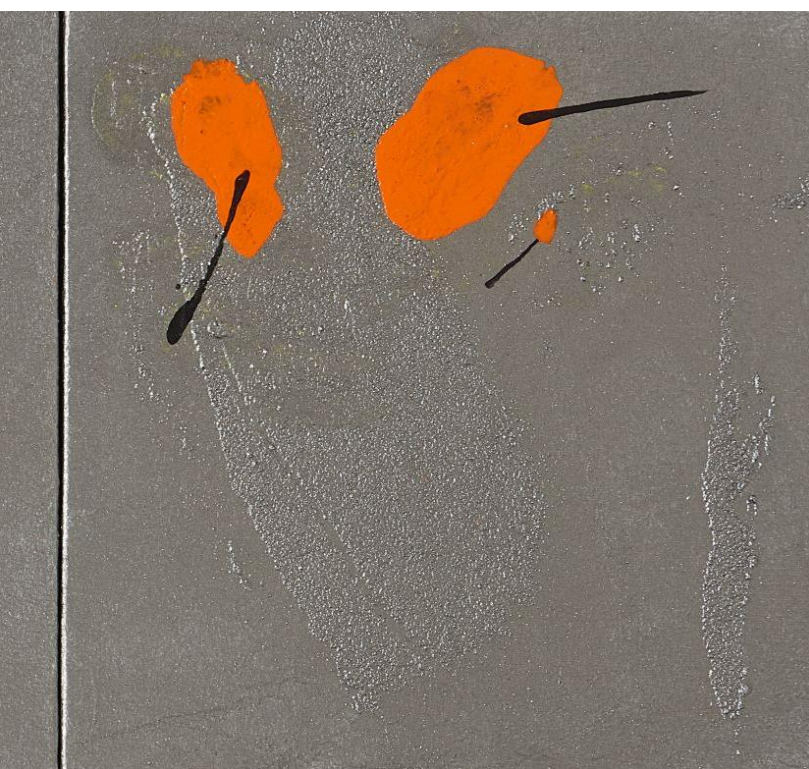




Embracing—품다

30x60cm
Mixed media on Canvas
2025





Embracing—품다

30x90cm
Mixed media on Canvas
2025

Embracing—품다

김동영 작가노트

나의 작품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의 연속이 작업의 시작이며 영원히 끝나지 않는 노래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작업 과정은 평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독백으로 또 하나의 공간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작품의 화면 위에 인간 욕망 즉 행운의 상징성으로서 네잎클로버가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내 작업에서의 네잎클로버는 인간의 외적 욕망의 상징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존재하는 가능성과 성찰의 시각적 메타포이다.

인간의 욕망과 신의 마음이 서로를 품을 때 신비가 나타난다.- 즉 질서(cosmos)이고 조화이다. 내 작업은 이들 존재들이 서로를 품으면서 교감을 생성하고 - 이러한 현상 속에서 작업은 형상화되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탐구의 과정이다.

초		바		개		러	리
	ㅏ		ㅓ		ㅓ		ㅣ
	ㅇ		ㄱ		ㄹ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2층